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2018.7.2.(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18.6.28.(목)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<b>담 당 자</b>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 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 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594)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박 재 훈(02-2100-2520)		유 승 은 사무관 (02-2100-2521) 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서 정 호(02-3145-8200)		박 상 원 팀 장 (02-3145-8204)

## 제 목 : 「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」, 7월부터 시범 운영

- ▶ 「금융그룹 통합감독」 모범규준을 확정하고, 7월부터 시행
- ▶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내용인 『금융그룹 자본적정성』에 관한 평가기준 초안 마련
- ▶ 금년 하반기중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(가칭)」 발의 추진

### 1. 추진 현황

- ☐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「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」 도입\*을 추진중

\* 100대 국정과제 中 하나이자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분야의 핵심과제

-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「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」을 발표하고, 3월에는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

- ☐ 금년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

- 지난 3월말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 (6.27일 금융위 보고)
-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(consultation paper)을 함께 공개

### < 추진 경과 >

- ▶ **감독기준 공개**: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('18.1.31) 및 모범규준 초안(3.30)
- ▶ **의견수렴**: 금융그룹 간담회('18.1.31, 4.25), 전문가 간담회(6.21), 공개 토론회(6.26) 등 개최
- ▶ **금융그룹 역량개발 지원**: 금융그룹 개별면담('18.4.16~18), 그룹리스크 세미나(4.30), 리스크관리 실무 T/F('18.5~6월) 등

## 2. 모범규준 주요내용

◇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초안(3월말 공개)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, 일부 기술적 사항을 수정·보완

- (주요 골자)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,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

### <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(☞ 참고 1) >

- ① **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** :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, 대표회사 이사회 및 위험관리기구의 역할,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
- ② **금융그룹 건전성관리** :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 그룹위험의 유형 및 평가기준
- ③ **금융그룹 감독** : 감독협의체 구성, 보고·공시 항목,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

- (수정사항)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,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

- 아울러, 행정처분(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 등),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은 삭제 (☞ 추후 입법안에 반영)

### <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 (☞ 참고 2) >

- ▶ (이사회 권한의 위임) 필요한 경우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
- ▶ (대표회사와 계열사 관계) 모범규준의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내용이 대표회사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계열사에도 적용됨을 명시
- ▶ (위험관리현황 보고기한) 그룹 위험관리 상황에 관한 대표회사의 보고 기한을 결산일 종료 후 2개월 → 3개월로 연장
- ▶ (감독대상 해당여부 보고의무)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대상 요건의 해당여부를 보고토록 한 규정 삭제
- ▶ (기타 절차규정 완화)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안건 심의빈도, 위험관리협의회 의사록 작성의무 등은 자율규제사항으로 위임

### 3.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(안)

◇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❶자본적정성 산정기준, ❷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사전 공개\*

\* 하반기중 의견수렴,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 확정 예정

❶ (자본적정성 산정기준)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(안)의 세부변수를 보완 (☞ 별첨 1)

자본적정성 구성항목		산정 방식
기본 항목	❶ 자기자본 합계액	▶ 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
	❷ 업권별 최소요구자본	▶ 감독대상 금융회사: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 (예: 은행의 경우 8%) ▶ 비규제 금융업: 총자산의 8%
차감 · 가산 항목	❸ 자본의 중복이용 (적격자본 차감)	▶ 금융계열사간 출자: 전액 차감 ▶ 상호·순환·교차출자 등: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
	❹ 집중위험	※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 ▶ (1단계)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 ▶ (2단계)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
	❺ 전이위험	▶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(1~5등급)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 (총위험자산의 0.5~2.5%)

$$\text{※ <참고> 자본적정성 지표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❶자본합계 - ❸차감항목)}}{\text{필요자본 (❷최소요구자본 + ❹❺가산항목)}} \geq 100\%$$

❷ (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)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(안) 마련 (☞ 별첨 2)

-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총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

- ① 그룹 위험관리체계 :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·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
- ② 자본적정성 :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
- ③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: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
- ④ 이해상충(그룹 지배구조) :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·투명성·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

#### 4. 『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(가칭)』 제정 방향

◇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

□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

□ 법안 주요내용 (잠정)

①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

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을 추가

##### <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>

- ▶ (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)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 시정조치,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, 이행강제금 등
- ▶ (행정제재)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(징계, 과태료, 벌칙 등)
- ▶ (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제한) 감독대상 금융그룹(금융지주그룹 포함) 이외의 금융회사는 '금융그룹'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
- ▶ (금융그룹 전환)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, M&A,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,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

#### 5. 향후 일정

□ '18.7.2일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\*

\* 우선 7개 금융그룹(삼성·한화·교보·미래에셋·현대차·DB·롯데)을 감독대상으로 지정·적용하고, '19년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 검토('18년말 자료 기준)

□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\*

\*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수렴('18.7~12월) → 최종안 확정('18.12월) → 평가기초자료 수집('19.1~3월) →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('19.4~6월)

□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('18.7월~'19.6월)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·보완 ('19.6월말)

< 참고 1 >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

< 참고 2 > 모범규준 초안 v. 최종안 비교

< 참고 3 > 그간 의견수렴 경과

< 참고 4 > 금융그룹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

< 별첨 1 >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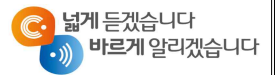
< 별첨 2 >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

< 별첨 3 >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## 1. 감독대상의 지정 (제2장) ※ 제1장은 목적·정의규정

-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<sup>\*</sup>(여수신·보험·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)을 통합감독대상으로 지정

\* 금융지주(통합감독제도 既 도입), 특수은행,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통합감독대상에서 제외

☞ 삼성, 한화, 교보, 미래에셋, 현대차, DB,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운영

## 2.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(제3장 제1절)

- ①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<sup>\*</sup>하여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함

\* 선정기준 :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. 단, ①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, ② 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, ③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회사를 달리 정할 수 있음

☞ (대표회사) 삼성 : 삼성생명 / 한화 : 한화생명 / 교보 : 교보생명 / 미래에셋 : 미래에셋대우 / 현대차 : 현대캐피탈 / DB : DB손해보험 / 롯데 : 롯데카드

- ②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·운영

\*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. 단, 금융회사별 사업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표회사에 既 설치된 위험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책임자로 대체 가능

## 3.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(제3장 제2절)

- ①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(적격자본)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(필요자본)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<sup>\*</sup>

\*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최종안은 의견수렴·영향평가 등을 거쳐 '18년말까지 확정

②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해야 함

③ 금융그룹은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전이위험(동반부실위험)을 적절히 평가·관리\*해야 함

\* (동반부실위험 관리시 고려사항) ①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, ②내부거래 비중, ③비금융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적정성, ④비금융계열사의 대외 평판위험 등

#### 4. 감독체계 구축 및 보고·공시(제4장 §16·17)

①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 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(은행·보험·금투 등)간 협업체계를 구축\*하는 등 감독체계 정비

\* 총괄부서와 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 및 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·점검

②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,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

#### 5. 그룹위험의 평가 및 위험관리 개선조치(제4장 §18·19)

□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\*하여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 권고

\* (실태평가지 고려사항) ①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, ②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, ③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적정성, ④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

※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개선만 주문(예: 그룹 자본비율 개선 등)하고, 구체적인 개선방안(예: 증자, 자산처분 등)은 금융 그룹 스스로 선택

## 1. 금융권 의견 등 반영사항

구 분	초 안	최종안
<b>① 대표회사 이사회 업무의 위임</b> (최종안 별표 1)	-	<p>&lt;신 설&gt; 대표회사 이사회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승인하는 경우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*</p> <p>* 금융지주회사법, 지배구조법 등도 이사회의 위험관리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</p>
<b>② 대표회사 이사의 충실의무</b> (최종안 제7조제3항)	-	<p>&lt;신 설&gt; 대표회사 이사가 그룹 위험관리 업무 수행시 대표회사가 아닌 그룹 이익도 고려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*</p> <p>* 그룹차원 위험관리 의사결정시 대표회사 이사들이 그룹 차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임 등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함</p>
<b>③ 대표회사 이사회 개최, 의사록 작성의무</b> (최종안 별표 1)	<sup>①</sup> 대표회사 이사회·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연 1회 회의 개최의무, <sup>②</sup>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사록 작성의무 규정	<p>이사회 등 개최의무, 의사록 작성의무 규정을 삭제. 다만, 관련 사항은 그룹위험관리절차 등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반영</p>
<b>④ 적용범위 명확화</b> (최종안 제3조)	-	<p>&lt;신 설&gt; 건전성 규제 의무 불이행시 관련 책임이 금융그룹 소속 개별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</p>



<p>⑤ 자본비율 산정시 중복규제 방지 명확화 (최종안 별표 2)</p>	-	<p>&lt;신 설&gt; 적격자본 전액차감 항목(금융계열사간 출자액 등)은 별도로 필요자본에서 위험으로 반영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*</p> <p>* 적격자본 전액차감 항목은 이미 위험평가가 자본기준에 반영</p>
<p>⑥ 보고기한의 연장 (최종안 제17조제1항)</p>	<p>금융그룹은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내에 금융당국에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함</p>	<p>결산기의 경우 3개월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</p>
<p>⑦ 경영개선계획 제출 권고의 요건 (최종안 제19조제1항)</p>	<p>금융위는 ①그룹위험 평가결과 일정수준 미달, ②거액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으로 자본적정성 기준 미달의 경우 금융그룹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권고 가능</p>	<p>「금융산업구조개선법」상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계획 제출 요건*과 동일하게 규정 (다만, ① 요건은 유지)</p> <p>* ① 자기자본비율 일정수준 미달 등 재무상태 일정기준 미달, ② 거액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으로 재무상태 일정기준 미달 명백</p>
<p>⑧ 감독대상이 아닌 금융그룹의 보고 (초안 제16조 삭제)</p>	<p>감독대상이 아닌 금융그룹이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</p>	<p>감독대상이 아닌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의 해당 여부 보고의무 삭제</p>

## 2. 필요적 입법사항 삭제\*

구 분	초 안	최종안
<p>① 유사명칭사용 금지 (초안 제4조 삭제)</p>	<p>감독대상인 금융그룹, 금융 지주그룹 등이 아닌 자는 금융그룹 명칭 사용 금지</p>	<p>유사명칭사용 금지의무 삭제</p>
<p>② 위험관리조치의 종류 (초안 제19조제2항 삭제)</p>	<p>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불이행 등 사유시 금융그룹에 금융그룹 명칭 사용금지, 동종금융그룹 전환 권고 가능</p>	<p>위험관리조치인 금융그룹 명칭 사용금지, 동종금융그룹 전환 권고 조항 삭제</p>

\* 모범규준에서는 삭제하되, 향후 입법안에 반영

- ①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」 개최 ('17.9.27, 금융연구원 주최)
- ②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」 개최 ('18.1.31, 금융위원장 주재)
  - \* 7개 금융그룹(삼성, 한화, 교보, 미래에셋, 현대차, DB, 롯데) 대표, 교수·변호사·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참석
- ③ 모범규준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 T/F 회의 ('18.2.8, 2.28, 3.27)
  - \* 7개 금융그룹 실무자,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참여
- ④ 금융그룹별 실무 면담 실시 ('18.4.16~4.18)
  - \* 7개 금융그룹 실무자 참여
- ⑤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」 개최 ('18.4.25,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)
  - \* 7개 금융그룹 임원 참석
- ⑥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세미나」 개최 ('18.4.30, 예보 세미나실)
  - (세션 1)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(금융위)
  - (세션 2) 그룹 위험관리체계 운영사례 발표 (KB지주, 신한지주)
  - \* 주요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등 80여명 참석
- ⑦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 T/F 회의 ('18.5.17, 5.28, 6.7, 6.25)
  - \* 7개 금융그룹 실무자 참여
- ⑧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자문단 회의」 개최 ('18.6.21)
  - \* 교수·변호사·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참석
- ⑨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」 개최 ('18.6.26)
  - \* 주최: 이학영 의원실 / 주관: 금융연구원 / 후원: 금융위원회

## 1. 감독대상의 범위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외국법인 제외) 국내 금융사가 직접 지배하고 있지 않은 <b>외국법인</b>은 감독대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(정보입수의 한계, 정보의 신뢰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수정반영)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이라고 하여 감독대상에서 일괄 제외할 수는 없으나, <b>통합감독을 실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적용제외 규정 마련(\$4)</b></li> </ul>

## 2. 대표회사의 권한 및 책임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의무이행주체) 금융그룹은 별도의 법인격이나 실체가 없어 명확한 의무이행 담보나 책임소재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며,</li> <li>- 대표회사에게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<b>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어려움*</b></li> </ul> <p>* 소속 금융회사의 협조의무만으로는 이행담보 부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수정반영)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금융그룹이 아닌 '<b>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</b>'로 규정(\$3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대표회사 권한) "대표회사는 ...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"(모범규준 \$7②)는 규정 관련, 대표회사가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<b>법령에서 부여하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수정반영) 금융그룹은 <b>통합 위험관리에 필요한 체계(조직·지배구조·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 등)를 갖추어야</b> 하며, 이 과정에서 최상위 금융회사(대표회사)가 각 소속회사 자료의 수집, 위험관리조치의 이행 등에 대한 <b>권한을 확보할 필요</b></li> <li>- 다만, 대표회사의 자료제출 또는 위험관리 조치의 이행 요청에 대해 <b>소속 금융회사의 성실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보완(\$7④)</b>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대표·소속회사 이해상충) 대표회사의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자본배분 과정에서 <b>대표회사·소속 금융회사간 이해상충 발생 및 독립적 의사결정 침해 우려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원안유지)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<b>그룹전체의 위험관리 역할</b>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<b>계열금융회사의 경영을 지휘·감독하는 것은 아니며</b>, 그룹 위험관리 책임도 그룹내 개별회사가 아닌 <b>그룹위험 전체를 평가하여 해당 그룹에 부과되는 의무(집합·연대책임의 성격)임</b></li> <li>- 따라서, 금융그룹 위험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, 실행방안(예: 위험부담한도 배분) 등은 <b>각 금융그룹의 경영전략의 영역</b>으로서, 금융그룹내에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고 결정할 필요</li> <li>- 아울러, 통합감독제도를 도입·시행하고 있는 <b>다수 금융선진국도 대표회사에 그룹리스크에 대한 관리책무를 부과하고</b> (감독원칙 \$13) 그룹차원에서 위험관리</li> </ul>

▶ <b>(대표회사 이사의 이해상충)</b> 대표회사라는 개별회사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v. 금융그룹 의사결정 회의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간 이해상충 문제 방지장치 마련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대표회사의 이사가 그룹차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논란 방지(§7③)
▶ <b>(위험관리위원회 위임)</b> 대표회사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상법 제393조의2 입법례와 유사하게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대표회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(별표1)

### 3.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▶ <b>(중요한 내부거래 기준)</b> 이사회 사전승인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부거래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모범규준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 의무를 삭제하고, 향후 법제화시 승인의무와 중요 내부거래 기준 등을 정할 예정
▶ <b>(업종특성 반영)</b> 주력상품의 집중이 불가피한 일부 금융업종의 경우 집중 위험 등 평가시 업종특성을 감안할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집중위험 등 평가시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업종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예정

### 4. 보고 및 공시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▶ <b>(보고·공시기한)</b> 개별 금융사 자료 취합 및 보고자료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고·공시기한을 연장할 필요(2월내 → 3월내)	▶ <b>(수정반영)</b> 매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(결산일의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) 보고하고, 3월 이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(§17①)

### 5. 그룹 자본적정성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▶ <b>(NCR 관련)</b> 그룹간 교차출자는 매각제한 자산이므로 자본 전액차감이 아닌 20% 위험계수(NCR 기준)를 적용*할 필요 * NCR은 매각제한 자산에 20% 위험계수 적용	▶ <b>(수정반영)</b> 교차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본활용 가능성을 소명하는 경우, 소명부분에 대해 자본으로 인정(별표2)
▶ <b>(NCR 관련)</b> 증권사 관련, 新NCR(총위험 분자차감)이 아닌 舊NCR(총위험 분모가산) 계산방식을 취하는 것은 불합리	▶ <b>(원안유지)</b> 그룹감독의 목적은 개별 증권사의 업무감독이 아니라 그룹위험 평가에 있으므로, 공통적인 적용기준(적격자본/필요자본)이 필요하며, 그룹 감독이 시행되어도 개별 증권사에는 계속 新NCR 계산방식 적용(별표2)
▶ <b>(중복자본 차감)</b> 순환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차감액의 세부 산정기준이 없음	▶ <b>(수정반영)</b> 순환출자의 중복자본 차감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'18년말 최종안 마련 예정

▶ <b>(적격자본 차감)</b> 적격자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필요자본 산정시 위험에 고려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적격자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필요자본 산정시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(별표2)
▶ <b>(과다 익스포저, 그룹위험 실태평가)</b>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다 익스포저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제도는 삭제할 필요	▶ <b>(원안유지)</b> 금융그룹 감독시 계열사 출자·비금융사 내부거래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(§13, §18) - 조인트포럼 감독원칙도 비규제·비금융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 하라는 원칙을 제시
▶ <b>(후순위채)</b> 후순위채의 경우 기간에 따른 인정비율이 존재하므로 차감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보완자본인정금액으로 변경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분에 대해서만 적격자본에서 차감(별표2)

## 6. 기타 의견

금융그룹 의견	검토의견
▶ <b>(정보공유)</b> 대표회사와 위험관리 목적의 고객정보·증권보유금액정보 등 공유시 금융실명법, 자본시장법 등 위반 소지	▶ <b>(수정반영)</b> 법제화 단계에서 금융실명법 등 위반 소지가 없도록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에 관한 규정 마련 예정
▶ <b>(위험관리조치)</b> 위험관리조치의 대상을 금융회사에 한정할 경우,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계열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권고를 하기 어려움	▶ <b>(수정반영)</b> 동종금융그룹 권고조치는 모범규준에서 삭제하고, 향후 법률안에 반영
▶ <b>(위험관리협의회)</b> 위험관리협의회의 인적 구성요건 불명확	▶ <b>(수정반영)</b>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준용하여 요건 명확화(별표1)
▶ <b>(그룹 위험관리기구)</b> 그룹 위험관리 협의회·위원회·책임자의 위험관리 업무를 통일할 필요	▶ <b>(수정반영)</b> 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업무 통일(별표1)
▶ <b>(회계법인에 대한 자료요구)</b> 회계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제공은 할 수 없음	▶ <b>(수정반영)</b> 금감원장의 회계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삭제
▶ <b>(대표회사 이사회, 위험관리협의회 개최 빈도)</b> 대표회사 이사회 등에 관하여 통상 법규에서 개최빈도를 규정하지 않음	▶ <b>(수정반영)</b> 대표회사 이사회,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빈도 규정 삭제
▶ <b>(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의사록 작성)</b> 그룹 위험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대표회사 위험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 개별회사의 위험관리 위원회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로서 의사록 작성의무를 준용(상법 §391의3·§393의2) 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실익 없음	▶ <b>(수정반영)</b> 그룹 위험관리기구 의사록 작성 규정 삭제
▶ <b>(사외이사 전문성 제고)</b> 사외이사의 위험관리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혹은 프로그램이 국내에 전무. 연수 제공의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	▶ <b>(수정반영)</b> 의무연수를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그룹이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(별표1)